

나주시, 농촌공간 재생사업 추가 선정

남부권역 이어 동부권 5개 읍면 국비 336억원 등 337억원 확보 내년 착공 5년간 정주여건 개선

나주시가 남부권역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이어 동부권역사업 추가 선정으로 남평읍·금천·산포·봉황·다도면 5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 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36억원 등 총 사업비 337억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 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 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연말까지 기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농식품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추진된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 중인 나주 남부권역에 속하는 영산강변 전경.

시설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나주시의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시범 지구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1년에 농촌 협약에 처음으로 선정돼 현재 남부권을 중심으로 327억원 규

모의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동부권 농촌협약과 영산강변 생활권 사업을 양측으로 삼아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라며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농촌, 활력이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다음달 1~4일 4일간 신청 접수

화순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벌꿀 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가격대를 달리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신청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의 안정성, 우수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8월부터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게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9경·9미·9품' 재선정...명소·특산품 정비

장흥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먹거리, 특산물 브랜드를 정비하기 위해 '장흥 9경·9미·9품'을 재선정했다.

'장흥 9경'에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천관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보림사, 해동사, 선학동마을, 소등섬, 하늘빛수목정원이 선정됐다.

'장흥 9미'에는 한우삼합(한우+표고+키조개), 된장볼찌, 키조개요리, 매생이 요리,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갑오징어회&떡볶, 낙지&주꾸미요리, 갯장어 샤부샤부를 확정했다.

'장흥 9품'으로는 한우육포, 표고버섯, 무산김, 청태전(전통 발효차), 키조개, 매생이, 편백제품, 친환경쌀 아미, 향토주(하늘수, 술도깨비)가 뽑혔다.



장흥 천관산.

올해 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월까지 군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민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집중호우 틈탄 불법배출 사전 차단

장성군이 오는 7~8월 두 달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선다.

장성군은 녹조 확산과 공공수역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현장 감시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큰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0개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단속반을 파견해 현장순찰과 예방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이달 중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자체점검 사전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영미 장성군 환경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장 자체점검 등 오염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비디오로 찍은 소중한 추억 디지털 파일로 바꿔드려요 담양군 선착순 50명 접수

담양군이 군민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영상 파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담양군이 추진하는 '아날로그 영상 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선착순 50명 접수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군민들이 추억을 남긴 디지털 영상을 디지털 전환, 컴퓨터와 TV,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HS, 6mm, 8mm 캠코더 테이프 등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다. 물잔치, 결혼식, 회갑연, 체육대회 등 개인이나 공동체 기록이 담긴 영상 테이프를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변환할 테이프와 USB 또는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신분증을 지참해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2층 기록관을 방문하면 된다.

변환된 영상을 군에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물 사본의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오감통의 다(茶)정한 피크닉'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문화공연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오감누리타운, 가족형 관광지 자리매김

'다정한 피크닉' 50가족 오감 만족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4일 강진 오감누리타운 일대에서 개최한 2025 오감통의 다(茶)정한 피크닉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강진의 차문화와 고려 역사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오감누리타운의 공간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50가족 180여명이 방문해 ▲차문화 체험 ▲고려의상 체험 ▲막대인형극 ▲마술 공연 ▲별문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더불어,

▲AI 가족송 제작 ▲사이클링 킴 만들기 ▲오감통 사진관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강진의 문화와 감성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특히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35가구에게는 피크닉 바구니, 다식 세트, 강진 차 세트 등으로 구성된 '감성 피크닉 세트'가 제공돼 품격 있는 휴식 시간을 선사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백경자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강진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는 장소로서, 오감누리타운을 가족 중심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